

마을 해설사와 함께 떠나는 높빛골 시간여행

1625년부터 1914년까지 고양시의 중심이었던 고양동은 고양군청, 벽제관 등 주요 관청의 소재지였을 뿐만 아니라, 한양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으로써 외교적,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고양동의 400년 역사를 알리기 위하여 마을 주민이 나섰다. 마을해설사와 함께 고양동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보자.

글. 사진. 황성민(고양 관광서포터즈)



마을해설사와 함께하는 시간여행

고양동 마을 해설사 프로그램, ‘내 고향 고양을 소개합니다’ 고양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은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화유산, 관광자원 등을 소개하고, 지역 특화 콘텐츠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지난 4월 2021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에 ‘고양동 높빛고을길’이 선정되면서 관련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었다. 역사학자, 여행전문가의 스토리텔링 교육 등 엄격한 과정을 거쳐 양성된 마을해설사들의 첫 임무는 높빛고을길을 안내하는 것으로, 마을 주민이라는 이점을 살린 깊이 있는 해설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수 있었다.

마을해설사가 들려주는 높빛골 시간여행

1. 고양동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벽제관지



높빛고을길 시간여행의 첫 방문지는 벽제관의 터, 벽제관지다. 벽제관은 중국과 조선을 잇는 의주길에 위치했던 10개의 역(驛) 가운데 첫 번째 역으로, 중국의 사신이 한양에 들어가기 전 필수로 머물며 의관을 정비했던 객사다. 단순한 숙소로 보기에는 그 역할이 매우 중대했는데, 외교 사절이 벽제관에 도착하면 정승급 인사가 사신을 맞이하며 상대국의 의증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조정해 전달하여 외교적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장차관급 회의 장소인 셈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이 일부 시설물을 밀반출하는 등 그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으며, 한국전쟁 때 유일하게 남아 있던 정문 ‘삼문(三門)’마저 소실돼 현재는 빈터만이 쓸쓸히 남아 있다. 최근 벽제관지 발굴조사를 통해 벽제관 원형 복원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고양동이 또다시 들쭉날쭉 있는데, 정밀한 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옛 모습을 되찾기를 희망한다.

위치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벽제관로 34-16

2. 고양동의 수호 은행나무



벽제관지를 떠나 고양동의 보호수, 은행나무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고양동의 은행나무는 수령이 무려 600여 년으로, 얼핏 보면 한 그루의 나무처럼 보이지만 사실 암그루와 수그루가 한 데 붙어 자란 것이다. 나무가 이렇게 붙어 자랄 경우, 보통 한쪽이 말라 죽지만, 신기하게도 두 그루 모두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 지금까지도 열매를 맺고 있다. 6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함께 세월의 풍파를 견딘 은행나무는 마을의 상징이 되어 산신제, 동제 등을 통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고 한다.

위치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58-14

3.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교육의 장, 고양향교



은행나무를 뒤로하고 찾은 곳은 고양향교다. 현재의 중고등학교 역할을 했던 향교는 조선의 대표적인 지방 교육기관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곳에 설치되었다고 한다. 고양향교는 수차례 전란을 겪으면서 현재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원래 향교가 있던 자리는 앞서 소개했던 600년 가까운 은행나무가 있던 자리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다.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서 제자들을 가르침에 따라 향교 근처에는 반드시 은행나무를 심기 때문이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고양향교 주말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도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고양향교.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12월까지 예약을 통하여 참여 가능하며, 향교의 유래 등을 배우고 민속놀이 체험도 할 수 있다.

위치 고양시 덕양구 대양로285번길 33-13

4. 중남미 문화의 총 집합체, 중남미문화원



높빛고을길의 마지막 여행 장소는 중남미문화원이다. 중남미문화원은 국내 유일의 중남미 관련 박물관 겸 미술관이다.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이복형 원장과 홍갑표 이사장이 직접 수집한 문화·예술품 3,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수천 년 전 중남미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주는 중남미문화원은 고양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코스로, 현재까지도 한국과 중남미의 외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풍성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중남미문화원, 고양동 여행의 피날레가 아닐까 싶다. 🌎

위치 고양시 덕양구 대양로285번길 33-15